

‘조선 잡아라’ 원내대표 후보들 불꽃 토론

민주당 오늘 원내대표 선출
공개 토론회서 우대 공약
김태년·전해철·정성호 3인
“상임위 우선 배정 하겠다”



주인공은 누구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김태년(왼쪽부터), 전해철, 정성호 의원이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을 뽑기 위한 7일 경선을 앞두고 원내대표 후보들은 6일 초선 당선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을 쏟아냈다.

특히 초선 당선자들의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일제히 초선 당선인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이처법 원내대표 후보들이 초선 공약에 나선 것은 전체 당선인(163명)의 41.7%를 차지하는 초선의 표심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태년·전해철·정성호(기호 순)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일제히 초선 달래기에 나섰다.

김태년 의원은 “이번에 ‘조선이 먼저다’라는 공약을 들고 두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한다”며 “초선 의원들의 전문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상임위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공약실천지원단을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 “초선 당선자의 의견에 따라 상임위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반드시 하고자 하는 정책실현과 제도적 개선을 대표입법 브랜드로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며 “당선자 각자가 전문가이자 민주당의 자산”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초선들이 주눅들지 않게 해야 한다. 각자 의원들이 가진 장점과 특

점을 제대로 발휘할 여건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공평무사하게, 선입견이나 개인적 관계 없이 원내 당직을 배분하고 다양한 소통 장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들 세 후보는 거대 여당을 이끌 청사진도 내놓았다. 김태년 의원은 “그동안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당정청 지도자들의 안정적인 리더십과 ‘원팀’의 통합된 단결력을 바탕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며 “원내대표가 되면 이를 이어 받은 ‘통합 리더십’으로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열린우리당 시절의 과오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정치, 계파정치는 다시는 당에 있어서는 안된다. 일의 순서를 잘못 잡아 우왕좌왕했던 과오도 다시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당정청 협력 강화, 일하는 국회로 개혁·민생입법 성과 도출, 의회와 정책 중심의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며 “결론은 일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담보할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상시 운영 국회체제와 국회 내 비상

경제특위 설치 등을 제안했다.

정성호 의원은 “20대 국회 민생입법이 어느정도 성과를 냈나 자문해야 한다”며 “열린우리당 트라우마로 (의원들이) 개인 생각을 자제하고 대통령 의견을 따라 최선을 다해왔지만, 더 진정성 있게 (야당을) 끌어내는 것은 여당 책임”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지방선거 때) 이재명을 도운 죄가 있지만, 비문(비문재인), 반문(반문재인)은 아니다”라며 “당을 하나로 묶어 당정청 관계를 원만하게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 vs 권영세

내일 선출... 이명수·김태흠 출마 철회

미래통합당 이명수(충남 아산갑)·김태흠(충남 보령·서천) 의원이 6일 원내대표 경선 출마 의사를 철회했다.

충남 아산갑에서 4선이 된 이 의원은 후보등록일인 이날 “당을 살리자는 순수한 뜻이었는데, 아직은 개인의 자리 때문에 경선에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당내 분위기가 있었다”며 경선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당을 혁신할 방법론에서 다양한 의견이 많아 이번 원내대표의 짐이 무거울 것”이라며 “누가되든 과거처럼 무늬만 바꾸는 혁신이 아니라 당을 실질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우리당의 재건과 새로운 변화를 위해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는 각오로 원내

대표 출마표를 던졌지만, 부덕의 소치로 이만 출마의 뜻을 접고자 한다”고 밝혔다. 충남 보령·서천에서 3선이 된 김 의원은 지난 3일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영남권 의원을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 삼으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도 초선 정책위의장을 영입하는 ‘파격’을 시도하려 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초선도 정책위의장을 할 수 있는데 아직 당내의 벽이 높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이 출마를 철회하면서 8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경선은 주호영(5선, 대구 수성갑) 의원과 권영세(4선, 서울 용산) 당선인의 양자 구도가 됐다. /연합뉴스

김두관 “중부세 인상 20대서 마무리 하자”

SNS에 글... 국회 논의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6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에 중부부동산세 인상안을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1대 국회로 남기면 2020년 납부분은 인상된 중부세율을 적용할 수 없어 세수 확보를 통한 경제 위기 대응에도 차질이 생긴다. 야당이 국난극복에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시급히 국회 논의에 응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제출된 중부세 개정안이 충분한 것도 아니다. 주택시장 정상화에 제1 효과 분명한 보유세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거둬들인 세금은 코로나 경제 위

기에 대응하는 기본 소득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체계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 1가구 1주택자는 중부세를 면제 혹은 감

경하고, 2채 이상 다주택자들은 무조건 중과세해야 한다”며 “다주택자의 법인을 통한 탈세를 차단하고, 주택임대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바뀌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21대 국회 당선자들부터 등원 전 1주택만 빼고 나머지 주택은 자발적으로 매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차관급 이상 정부 관료도 동참할 것을 권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주당 ‘한국판 뉴딜’ 예산·입법 지원 착수

21대 국회 개혁입법 우선 과제 선정 작업... 이달중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입법 지원과 개혁입법 준비에 나서고 있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전략기획위원회는 21대 국회 개혁입법 우선순위 과제를 추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전략기획위는 이달 중 열릴 21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년 남은 지금 시점에서 21대 국회 전반기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야 한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문 대통령이 천명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예산·입법 지원을 중심에 두되 개혁입법 추진도 병행한다는 전략을 짰다.

남은 문 대통령 임기 2년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개혁입법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를 먼저 추진한 뒤 개헌 등 민감한 문제는 후순위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임기 2년, 그리고 다음 5년을 만들 기반을 ‘2+5 체제’로 마련해야 한다”며 “모든 정책의 우선 과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다.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180석의 의미가 사라진다”

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개혁입법 중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일환이 될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 사회안전망이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됐다”며 “포스트(post) 코로나 때에는 더욱 중요한 그런 사회제도가 뒷받침돼야 극복이 가능하다. 당정간 여러 협의를 할 때 그 점을 반영해주시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도 “사회안전망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당장 고통받는 분이 많이 있으니 보안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민주당, 시민당과 합당’

오늘 권리당원 투표 진행

더불어민주당은 7일 비례정당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여부를 묻는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코로나 국난, 경제 위기를 극복하라는 국민 명령을 따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코자 시민당과 합당을 추진한다”며 투표 일정을 알렸다. 투표는 7일 오전 6시부터 8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투표에서 합당 결론이 나면 12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합당 결의를 할 예정이다. 이후 중앙위가 정한 합당수입기관 회의에서 15일까지 합당을 의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신고를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김정은 심장 시술·수술 없었다”

국정원, 건강이상설 공식 부인

국가정보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근 건강 상태와 관련, 심장 관련 시술이나 수술 등을 받지 않았으며 ‘건강이상설’을 공식 부인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국정원은 올해 들어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이 크게 줄었지만 이는 내부 전열 재정비와 코로나19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현안 보고에서 김 위원장 동향과 관련, “적어도 심장 관련 시술이나 수술 등을 받은 것은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공개활동을 안할 때도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이 자리에서 “올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활동 횟수가 5월 6일 현재 17차례로 예년 동기 평균(50회)과 대비해 66% 감소한 역대 최소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이 군 전력과 당정회의를 직접 챙기는 등 내부 전열 재정비에 집중하고, 코로나가 겹쳐 공개활동이 대폭 축소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